

125. 자동차제조업에서 발생한 ‘좌슬부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슬부 대퇴사 두고건건염’

성별 남 나이 48세 직종 자동차 제조업 업무관련성 낮음

1. 개요: 근로자 안○○은 소형버스 의장 수정작업을 수행하던 중 2006.2.13 좌 슬관절 부위 질병 소견이 관찰되어 ‘좌슬부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슬부 대퇴사 두고건건염’의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2.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는 안○○자동차에 입사하여 1998.5월부터 소형버스 의장수정작업을 하였으며 근무시간은 08:00~18:00이고 2교대이다. 프론트/텔게이트 글라스 수정 및 교환작업은 선 자세에서 프론트 또는 텔게이트 글라스 파손 및 누수 시 2인 1개조로 글라스를 탈거한 후 제조립한다. 트윈스윙 도어 단차간격 수정작업은 양쪽 도어가 맞지 않을 때 도어 중앙부를 발로 차서 밀어내어 수정한다. 범퍼 수정 및 교환은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바닥에 지지하여 수행한다. 도어 단차간격 수정작업은 하루 평균 10대, 범퍼 수정 및 교환 작업은 하루 0.55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윈스윙 도어 단차간격 수정 작업은 274.7~515초, 범퍼 수정 및 교환작업 시간은 68.7~154.5초가 소요되었고 무릎을 굽히는 동작은 근무시간의 9.3~17.5%로 분석되었다. 트윈스윙 도어 수정작업 및 범퍼 수정 및 교환작업 모두 Action Level 4로 나타났다. 안○○의 경우 복직 후에는 선 자세에 작업이 가능한 글라스 수정 및 교환작업을 주로 수행하였다.

3. 의학적 소견: 2003.6.13의 우측 무릎의 외상으로 2개월간 사내 치료를 받고 동년 10월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손상’으로 요양승인을 받았다. 2005.04.29. 복직하여 근무 중, 좌측 무릎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여 근골격계 수시검진 신청하여 2006.2.13에 유소견자로 진단되어 산재요양을 신청하였다. 요양기간 중 2004.09.09 OO정형외과에서 ‘좌측 무릎 관절증’으로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었고 2004.07.과 2006.10. 2차례 수술을 하였다.

4. 결론: 근로자 안○○은

- ① ‘좌 슬부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슬부 대퇴사 두고건건염’으로 진단되었고,
- ② 동 상병은 2003.6.13의 사고에 기인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 ③ 복직 후 무릎의 통증으로 인해 선자세로 가능한 작업을 주로 수행하여서 좌측 무릎에 큰 부하를 주는 작업은 아니었으며,
- ④ 우측 슬관절의 동통으로 좌측 슬관절에 무리가 가해졌을 것으로 추정되나 좌측 반월상연골판 손상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근로자 안○○의 ‘좌슬부 외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슬부 대퇴사 두고건건염’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